

01 교회소식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려 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가상칠언 (2)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가상칠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참된 가족임을 깨달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하나님께 응답받는 '지혜'

순종의 지혜로 문둥병을 치료받은 나이만 장군, 경비함의 지혜로 딸의 문제를 해결받은 수로보니게 여인 등 응답받는 지혜의 비결을 배운다.

04 간증

"주 안에서 응답과 축복이 넘쳐요!"

생명의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전하며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스테피 메린 자매와 요로결석을 치료받은 임수진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47호 2016년 7월 1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생명의 말씀이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방송과 책자, 목회자 세미나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접한 전 세계 목회자와 성도들의 반응은 실로 놀랍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고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거리를 불문하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방문하여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 등 곳곳에 참석하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배움과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

지난 6월,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정명호 목사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영적인 말씀과 권능의 사역을 소개받은 콩고민주공화국 베사이다 교단 전체가 지교회로 가입했다. 베사이다 교단은 중·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등 교육센터를 두루 갖춘 큰 교단이다. 총회장 까부뚜 비리야기 목사는 세미나와 만민국제신학교를 통해 성결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줄 것을 요청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함 속에 풀어 받은 주옥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전 세계로 전파되어 하나님 역사에 갈급해하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세미나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접한 목회자들이 이 목사의 저서로 스터디를 진행하며 목회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레이문도 칸델라리아 목사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공부하면서 성결한 마음을 이루고자 노력하게 되었고,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은혜로 충만해졌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라

고 했다. 또한 파키스탄의 스테피 메린 자매는 대전만민교회 길태식 목사의 세미나에서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전해들은 뒤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이 목사의 설교를 우르두어로 통역해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있다(4면 참조). 유럽에서는 이재록 목사의 설교에 은혜받은 성도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스위스의 굴바하르 슌들러 성도는 TBN 러시아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어디서든 들어보지 못한 은혜로운 말씀에 매료되었다. 만민중앙교회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이 목사의 수많은 설교를 청취하며 영적인 목마름을 일순간에 해결받았고, 결국 한국 만민중앙교회까지 방문해 은혜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가족과 지인들을 전도하여 스위스 가정교회를 세웠다. 그녀는 요즘 남편 유르그 슌들러 성도와 함께 잠들어 있는 유럽 교회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울 소망으로 충만하다.

일드프랑스만민교회 역시 생명의 말씀에 은혜받은 한 성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자넷 두브레이 성도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 수십 편을 듣고 송이 꿀보

다도 단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시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예배 상황에 함께하며 이 목사의 화상기도로 고혈압도 치료받았다. 달라진 그녀의 모습에 동료들이 전도되어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하며 그들도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았다. 이렇게 하나둘씩 모인 사람들이 어느덧 수십 명이 되어 지금의 일드프랑스만민교회가 된 것이다.

벨기에 에노만민교회도 노현숙 목사를 통해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전해들은 한 성도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기를 요청함으로 세워졌다. GCN방송을 통해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하는 에노만민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물론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닌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의 때이다. 그러나 발달된 지식과 문명의 이기로 인해 전 세계 어디서나 생명의 말씀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세대이기도 하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와 회복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기 바란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850여 편의 이재록 목사 설교를 들으려면**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가 담긴 ‘십자가의 도’를 비롯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등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말씀과 창세기, 욥기, 잠언,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 강해 등 현재 총 1,850여 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 말씀은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로 제공되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와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www.gcntv.org), 총 61개 언어로 번역된 386종의 이재록 목사의 다국어 저서(www.urimbooks.com), 한국어 104권, 전자책 51개 언어 368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께서...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대...”
(요한복음 19:26~27)

예수님의 가상칠언 (2)

만드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며(빌 2:6) 성자 하나님이 되는데 어찌 어머니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분으로(출 3:14) 누군가 하나님을 낳거나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정녀 마리아는 유전적으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여인의 몸을 빌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그 여인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미숙한 아기가 잠시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랐다고 해서 인큐베이터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어머니라 칭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동정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섬기며 우상처럼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4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말씀한 대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든 섬기며 경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씀하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상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보며 마치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마리아를 기억하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위로하시며, 제자 요한을 친아들처럼 의지하게 하신 것이지요.

2.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친어머니처럼 섬기며 살게 됩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은 후, 남편인 요셉과의 사이에 여러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한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가족이지요.

우리가 육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부모의 정자와 난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잉태된 아이에게 영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기에 때문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복제에 관한 논란이 많지만 아무리 유전 공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영혼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설령 사람의 육은 복제할 수 있다 해도 영혼이 없으니 짐승과 다름이 없으며 참된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더구나 잉태된 자녀의 성별이나 성품, 외모 등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는 마귀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요 8:44).

그러니 이 땅에서 서로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이라 해도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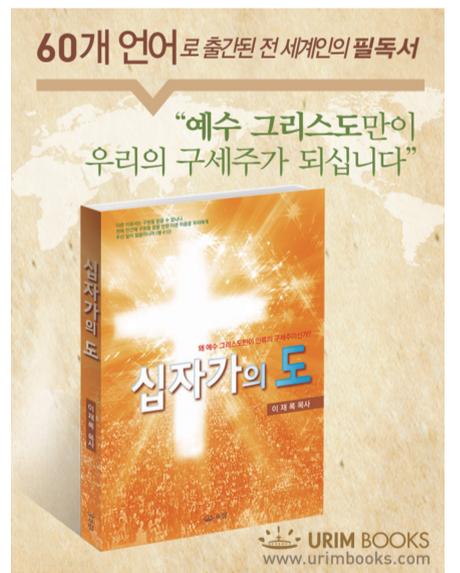
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말씀하시며 참된 가족, 영적인 가족에 대해 알려 주셨습니다(마 12:50).

육의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 앞에 함당한 영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훼방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행하는 가족에게 맞춰준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가령, 육의 부모나 형제가 “교회에 가지 말라.”, “방탕하게 즐기며 함께 죄를 짓자.” 하는데 거기에 맞춰준다면 이는 사랑도 아니며 오히려 함께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또한 진정 가족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함께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하지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 중 세 번째 말씀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의 형제자매가 참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셨으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영적인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응답받는 행함, 그 지혜의 비결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 하신 대로 성경상의 인물들은 과연 어떠한 지혜로 칭찬을 받아 응답을 받았는지 그 지혜의 비결을 살펴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순종의 지혜’로 문둥병을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갔다. 이는 나아만에게 복되고 선한 소식을 들을 때에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곳에 당도하자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말만 전했다. 이에 나아만은 노하여 되돌아가려 했으나 종들의 만류에 돌이켜 그 말대로 순종한다. 나아만은 계집종의 말 한마디도 업신여기지 않고, 하찮은 종의 말도 흘려듣지 않을 만큼 겸손했던 것이다.

이처럼 나아만 장군은 자존심을 버리고 교만을 깨뜨려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위로부터 왔고, 그 결과 깨끗이 치료받았다.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요삼 2절).

‘믿음의 지혜’로 시공을 초월하여 응답받은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와 간절하게 구했다. 하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 간구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즉시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하셨으나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대”라고 한다.

이처럼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마음 자세였기 때문이다(마 8:9). 다만 말씀만으로도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로마의 백부장 이면서도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며 온전히 순종할 자세였기에 그는 마음의 원대로 즉시 응답을 받았다.

즉 예수님께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근본의 소리를 발하시자 그곳에 있지 않은 백부장의 하인이 그 시간에 나음을 입은 것이다.

‘겸비함의 지혜’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자 뜻밖의 답변을 하셨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여 웅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끝까지 겸비한 태도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결국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 온전케 되는 응답을 받았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지혜있는 사람은 겸비함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된다. 겸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썩어질 것을 위해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으며, 영의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하여 낮아지고 또 낮아질지라도 영을 얻기를 사모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은혜를 구하는 겸비한 마음과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내보여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감화시켜 어떤 문제나 불치병이라도 능히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선의 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롯

롯기를 보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은 물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롯은 자신의 도리를 좇는 길을 선택한다. 이후에도 롯은 성실과 진심으로 변함없이 행하는데, 이러한 롯의 행실은 베들레헬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결국 보아스가 롯의 기업 무를 자가 되어 롯을 아내로 삼게 된다. 마침내 롯은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등 영육 간에 큰 축복을 받았다.

이처럼 중심이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때 단지 몇 번 하다가 멈추지 않는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으로서 바른 도리를 좇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에 변함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선한 양심을 따라 오직 선으로만 주관받으면 선의 지혜로 롯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축복된 결과를 맞을 수 있다.

‘이웃에 관한 지혜’로 온 가족과 더불어 구원받은 고넬료

누군가에게 먼저 베풀고 진실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에 관한 지혜를 가졌다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의 이탈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의 악이 버려지고 선이 임하는 만큼 입술의 말이나 행실에 서도 선이 나온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하지 않으며, 편안함과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을 하게 된다. 또한 착한 행실, 덕과 사랑을 끼치는 행실이 나온다.

구제는 영혼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러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한 도리를 좇아 온전하고 바르게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직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어떠한 것에도 걸릴 것이 없고 허물될 것이 없으니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 사심으로 인해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녕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을 믿기에 더욱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한다.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7 Green July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7.17~ 7.23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우리가 바라볼 것 12
- 2차 영혼육 10-14
- 사랑 1
- 생명의 씨 1-4
- 천국 35-41
- 창세기 강해 76-80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 요한일서 강해 19-24
- 성령의 9가지 열매 6-9

GCN TV설교

- 영으로 들어가는 습관 1 (이수진 목사)
-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미영 목사)
- 막달라 마리아 3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33 (이희선 목사)
- 용기 강해 21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30 (정구영 목사)
- 마음 그릇 넓히기 (김현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6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57
- 내 마음의 찬양 26
- 창조와 과학 10
- 모두 드려요 37
- 즐거운 요리 4
- 옛날 옛적에 13
- English 2
- 뷰티풀 라이프 5
- 흥겨운 소리 6

해외성회 프로그램

- 필리핀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은 길 13
- 회상 (시즌2) 7
- 2015 만민하게수련회 캠프피어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파키스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스테피 메린 자매 (21세, 파키스탄)

저는 샘슨 제이콥 목사님을 통해 만민중앙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파키스탄에서 길태식 목사(대전만민교회 담임)님이 인도하신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뒤에는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리 갈리교회의 담임목사인 아버지와 오빠, 언니와 함께 참석했는데,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증거되는 말씀과 치료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지만 했지요. 이후 저희 가족은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와 『십자가의 도』 책자를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이재록 목사님을 부르셨는지 그 과정을 보며 감동이 되었고,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섭리들을 깨우치게 되었지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저와 언니는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온라인을 통해 MIS(만민국제신학교) 과정을 수강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와 비밀한 섭리를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만민중앙교회의 홈페이지(www.manmin.org)를 통해 GCN방송을 시청하며 많은 은혜를 받아 저희 타타 지역에도 이런 훌륭한 설교와 영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널리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 기도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

다. 마침 길태식 목사님의 후원으로 GCN방송 프로그램을 이곳에 송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매우 기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2014년부터 하루에 여섯 차례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우르두어로 동시통역하여 케이블을 통해 많은 사람이 시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생명력 넘치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지요. 요즘은 시청자들이 2백 명이나 되며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전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교회에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시청하던 케이블 TV를 끊고 GCN방송 애청자가 되었지요. 이들로부터 많은 간증 소식을 듣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무슬림들도 질병을 치료받는다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자’라는 한 여인은 오랫동안 고혈압과 심장병이 있었는데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되었습니다. 그 뒤 믿음의 많이 성장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그녀가 전도한 무슬림 여인은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무릎 통증을 치료받기도 하였지요.

이 외에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여인에게 무안단물을 뿌려주었더니 불임이 치료되어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길태식 목사님의 후원 및 지도에 따라 파키스

탄 내 목회자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MBC(만민성경대학)의 현지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 전도사 등 145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하며 성령의 영감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선물을 주신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지요.

저의 비전은 이슬람국가인 조국 파키스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만민중앙교회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저는 작년부터 길태식 목사님의 배려로 한국에 1년간 거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귀한 성결의 복음과 이재록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설교를 우르두어로 동시통역하는 메린 자매(위)와 말씀으로 새로워진 그녀의 가족.

“1.3 cm 요로결석이 사라져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임수진 집사 (53세, 중국 2교구)



2015년 8월,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등 뒤쪽도 아팠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통증 때문에 한 시간이 채 못 돼서 일어나야만 했지요. 소변을 볼 때는 고통이 너무 심했고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

다. 병원 검사 결과, 요로결석이었습니다. 의사는 결석의 크기가 너무 커서 레이저로 제거할 수 없다며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방법으로 요로결석을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저는 2009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를 하자 허리디스크를 비롯한 온몸 통증을 깨끗이 치료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초, 마침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아 산상기도 중에 내려오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

다. 할렐루야! 수술 없는 제거가 어렵다던 1.3 cm나 되는 요로결석이 아무런 의학적 치료 없이 오직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수술 없는 제거가 어렵다던 1.3 cm나 되는 요로결석이 아무런 의학적 치료 없이 오직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좌측 요관에 1.3 cm 크기의 결석이 보이고 있다.



좌측에 보였던 1.3 cm 크기의 결석이 사라져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1-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상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지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량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탈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향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11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통영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유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감동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로 22, 온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